

로마서 묵상 51  
(4/23/2021, 금)

찬양: 73(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로마서 11:25-36

말씀에 대한 이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거역과 불순종,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을 통하여 유대인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 이 세 가지의 상관관계를 설명한다. 그리고 1-11 장의 내용을 마무리 하면서 신비롭고 오묘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구원받는 이방인의 수가 총만해지기까지 유대인들은 우둔함에 거한다(25 절).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은 구원의 자리로 들어온다고 말씀한다. 이 메시지는 이미 앞에서 선포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실족과 이방인의 구원이 묘하게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이다(롬 11:11-12).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이방인들의 수가 총만해 졌을 때 유대인들도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25 절)고 말씀한다. “이방인의 총만한 수”라는 표현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먼저 이방인들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후에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다.

바울은 26-27 절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유대인의 회복을 확신하고 있다. 26 절 -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굽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사 59:20) 27.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사 27:9). 바울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다. 아울러 그가 믿은 것은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이다. 언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는 하나님의 영역이며,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이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비롭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지켜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신비는 비밀이며, 비밀의 속성은 아무나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비밀은 아는 사람만이 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비밀과 신비를 계시해 주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담고 있다. 딤후 3:15 -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신비를 접하고, 깨닫고, 체험하는 사람들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가장 큰 신비 중의 하나인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소망과 기대 가운데 지켜 보며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다.

바울은 28 절에서 이스라엘을 “원수 된 자”라고 표현했다. 이것은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바울은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리”는 말씀도 덧붙임으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결코 중단된 것이 아님을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을 29 절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29 절). “은사”는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받은 은혜의 특권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는 말씀은 취소하거나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은사와 부르심을 거두지 않으셨다.

바울은 30-32 절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순종하지 않던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도 이방인처럼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언한다. 바울은, 유대인을 먼저 선택하신 하나님은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시고, 때가 되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처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한다. 이것은 놀랍고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은 불순종이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 32 절 -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다.

끝으로, 바울은 33-36 절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한다. 33-36 절 - 33.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35. 누가 주께 먼저 드러서 깊으심을 받았느냐 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주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깊은 고민과 안타까움을 가졌지만, 그와 함께 유대인의 구원을 이방인의 구원과 함께 묶어서 역사 하시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였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는 하나님의 역사 자체의 신비를 알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신비롭게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 지식, 내 판단, 내 경험에 비추어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된다.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생각하며 함부로 불평하거나 쉽게 좌절하고 실망하며 낙담해서도 안될 것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비밀과 관련된 바울의 깨달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이 세상과 우리 개개인의 삶의 전반에 일어나고 있음을 깊이 생각하게 하며, 더 깊이 기도하게 한다.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찬양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열린 마음과 순종임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은 처음도 찬양이며, 마지막도 찬양임을 알게 한다. 바울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분을 향한 진심어린 찬양을 통하여, 로마서 서두에서 11 장까지 계속된 이신칭의를 중심으로한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였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인 순종과 찬양으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치고 도전한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멸망으로 가던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겸손과 감사로 더욱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2.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사랑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3.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